



Credit/ESG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3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ESG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관기

지난주 부산에서 개최된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다녀왔다. 올해 행사의 대주제는 “기후테크가 만드는 거대한 변화: 탈탄소 세상을 향한 도약”으로 정해졌다. 전반적인 행사의 주제 내지 분위기는 작년의 논의 수준에서 크게 발전 내지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 작년의 주제는 “AI for Energy, Energy for AI”였는데 사실상 작년의 주제가 반복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2년간의 행사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 테마는 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력량 사용 급증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겠다. ‘25년의 경우 전력수요 급증 문제에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총론적인 접근이었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AI 발 데이터센터(이하 DC) 설립 급증에 따른 제반 이슈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가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된 양상을 띠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DC 및 그에 필요한 전력공급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hurdles 존재하고 있다. 우선 DC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CrediVille의 지식이 짧은 관계로 그렇다는 정도로만 언급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일단 지금 업계에서 주장 내지 희망하는 수준/규모로 DC를 짓는다고 치자. 그럴 경우 바로 떠오르는 이슈는 DC에 필요한 전력을 어떤 식으로 공급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통상 대형 DC 한 설비에서 소요되는 전력량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소 1곳의 발전용량에 육박한다고 한다. DC를 100곳 지으면 발전소 100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아도 신설예정인 반도체공장에 필요한 전력공급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한국의 사례를 DC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인 다른 국가에 대입해보면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된 이슈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될 성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백번 양보해서 DC를 원하는 만큼 짓고 발전소도 그에 맞추어 지을 수 있다고 치자. 그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원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 위기 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로 인해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원 확충을 통해 DC 관련 추가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도 백번 양보해서 어떻게든(석탄을 때든,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든) 필요한 만큼의 발전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치자. 그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 수요지로 보낼 것인가(전력망 구축)이다. (물론 이 이슈는 발전소 설립 위치 선정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넘어가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기는 생산만 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로 하는 곳에 송전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송전망 구축에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사회적인 비용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길목마다 병목현상이 산재해 있는 것이고 각 병목구간별로도 정체현상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튼 이 같은 문제점들을 관련업계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이번 박람회 세미나에서도 그 같은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DC를 얼마나 짓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술적/사회적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조율해 나갈 것인지가 참석자 및 발표자들의 주된 고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민이 뚜렷한 해결책 없이 공전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얻은 일차적인 결론은 결국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이상 진도가 더 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한국의 전력산업은 국가가 전력공급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주도하면서 공기업 중심의 독점적 공급체제로 발전해왔다. 그에 따라 전기요금은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물가, 산업 경쟁력, 소비자 부담 등의 변수를 함께 고려하는 공공요금의 성격이 강하다. 평상시에는 이 같은 구조가 지니는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에너지 원료 수급 문제가 긴박해지고 AI 환경과 관련하여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전력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가 사업자의 수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가격/보상체계로는 급등하는 전력수요 시스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나 전력 관련 설비(발전소)나 송전망 같은 인프라의 구축에는 일반 산업 설비투자와는 다른 누진적인 비용 발생이 수반된다. 단순히 증가된 전력수요 용량만큼 발전소를 더 짓는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AI 관련 수요 급증 시나리오에서 요구되는 전력 확충에는 예비전력, 주파수 조정, 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기여도에 상응하도록 보상체계가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만큼 많은 전력수요를 유발하는 한계 수요자들이 그 같은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즉, 과금제도의 개선이야말로 현재 우리(또는 세계 모든 나라)가 처한 전력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떤 방식이라도 무방할 듯하다. 예를 들자면 장기전력계약 등을 통해 과다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전기 사용량 구간별로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도 먼저 자기 생명줄인 전력공급망 병목현상을 먼저 해결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도표 1. 전력병목: AI 시대. 부족한 것은 전기가 아니라 시간이다

전력 병목: AI 시대, 부족한 것은 전기가 아니라 시간이다

AI 데이터센터의 첫 번째 조건: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가



자료: 아나중권

크레딧스프레드 동향 및 전략

국고채금리, 신용스프레드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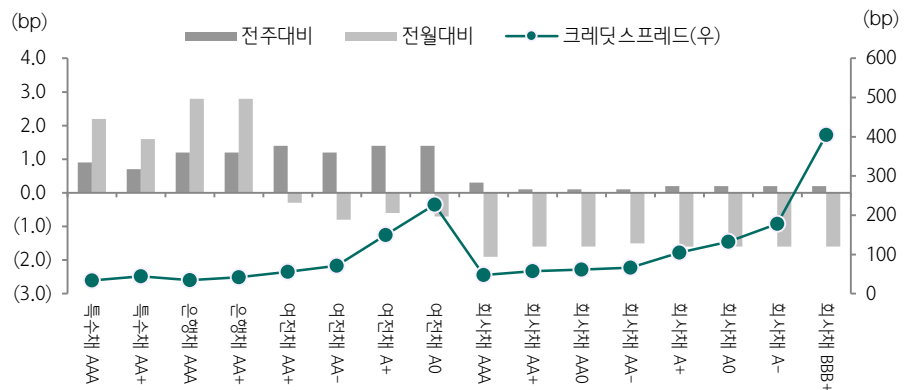
국고채금리 혼조세

지난주 채권시장은 단기물은 약세, 장기물은 강세를 보이며 커브가 플랫닝 됐다. 국고채 3년물이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약 3년여 만에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대외적으로는 미 연준이 3년 2개월 만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25bp 인상했고.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도 4.13%로 제시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BOJ도 25bp 인상을 진행하며 주요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졌다. 한미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최종금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고, 이는 단기물 약세 압력으로 이어졌다. 반면 장기물은 사우디산 원유가 오만을 거쳐 추가 공급된다는 보도로 유가가 1주일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미국채 10년물이 다시 5% 아래로 내려오면서 강세를 보였다.

신용스프레드 확대

지난주 신용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단기구간의 약세 현상은 회사채를 제외하고는 지속되었다. 대내외 시장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채권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좀처럼 풀리지 못한 결과라 판단된다. 회사채의 경우 제한적인 수요예측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결정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약세 압력이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추석 명절 및 분기말을 앞둔 시점에서 다음주까지도 현재와 같은 피동적인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판단된다.

도표 1. 주요 크레딧 채권 스프레드 주간/월간 변동 (3년물 기준)



주: 2026.9.18 기준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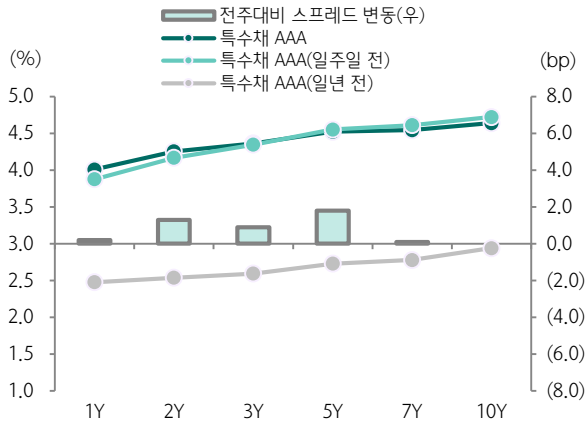
도표 2. 크레딧채권 금리 및 스프레드 변동

(단위: %, bp)

구분		금리					스프레드					스프레드 변동(WoW)					스프레드 변동(MoM)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1Y	2Y	3Y	5Y	10Y
국채		3.72	3.97	4.03	4.22	4.46	-	-	-	-	-	9.5	6.3	0.7	-4.7	-8.2	31.9	30.8	18.7	11.3	8.3
특수채	AAA	4.01	4.25	4.36	4.52	4.64	52.2	27.0	33.5	30.2	17.8	0.2	1.3	0.9	1.8	0.0	9.1	4.4	2.2	1.7	0.3
	AA+	4.07	4.36	4.47	4.65	4.84	58.8	37.9	44.1	42.7	37.5	0.2	1.3	0.7	1.8	0.0	9.6	4.7	1.6	1.8	0.4
은행채	AAA	4.04	4.26	4.38	4.54	4.88	55.4	27.9	34.8	32.2	42.1	0.7	1.8	1.2	1.3	0.0	10.9	6.3	2.8	-0.2	0.7
	AA+	4.09	4.34	4.45	4.62	4.96	60.4	36.0	42.1	39.7	50.2	0.7	1.8	1.2	1.3	0.0	10.9	6.2	2.8	-0.3	0.7
여전채	AA+	4.18	4.52	4.59	4.63	5.82	69.1	53.9	55.9	40.6	136.0	1.1	2.0	1.4	0.1	0.0	5.5	0.4	-0.3	-1.7	-0.1
	AA-	4.26	4.64	4.74	4.89	6.22	77.1	65.6	71.0	67.2	175.7	1.1	2.0	1.2	0.2	0.0	5.5	0.4	-0.8	-1.7	-0.2
	A+	4.61	5.13	5.52	6.03	6.92	112.8	114.2	149.6	180.8	245.8	1.2	2.2	1.4	0.3	0.0	6.1	0.9	-0.6	-1.5	-0.1
	A0	5.28	5.88	6.30	6.69	7.34	179.3	189.3	226.8	246.8	287.9	1.2	2.2	1.4	0.3	0.0	5.9	0.6	-0.7	-1.6	-0.1
회사채	AAA	4.09	4.45	4.50	4.58	4.95	60.7	47.1	47.3	35.9	49.2	-0.2	-0.1	0.3	0.0	0.0	5.7	-3.1	-1.9	-1.9	0.0
	AA+	4.19	4.54	4.60	4.67	5.24	70.0	55.4	57.2	45.2	77.6	-0.2	-0.2	0.1	0.2	0.0	5.7	-2.4	-1.6	-1.6	0.0
	AA0	4.22	4.57	4.64	4.74	5.58	73.7	58.5	61.2	51.9	111.7	-0.2	-0.2	0.1	0.2	0.0	5.8	-2.4	-1.6	-1.6	0.1
	AA-	4.26	4.62	4.69	4.84	5.94	77.3	63.4	66.4	62.2	147.9	-0.2	-0.2	0.1	0.2	0.0	5.7	-2.4	-1.5	-1.6	0.0
	A+	4.40	4.90	5.08	5.50	6.52	91.3	91.6	105.0	128.1	205.7	-0.2	0.2	0.2	0.0	0.0	5.4	-2.1	-1.6	-1.8	0.1
	A0	4.56	5.09	5.35	5.95	6.98	107.1	110.4	132.2	173.2	251.9	-0.2	0.2	0.2	0.0	0.0	5.4	-2.1	-1.6	-1.7	0.1
	A-	4.83	5.44	5.81	6.54	7.49	134.0	145.6	178.1	232.2	303.0	-0.2	0.2	0.2	0.0	0.0	5.4	-2.1	-1.6	-1.7	0.1
	BBB+	5.88	7.48	8.07	8.42	8.99	239.8	349.5	404.5	420.1	453.3	-0.2	0.1	0.2	0.0	0.0	5.4	-2.1	-1.6	-1.9	0.0

주: 1) 2026.9.18 기준, 2) 1Y, 2Y는 통안채(이표) 동월물 대비. 이외 3Y 이상은 국고채 동월물 대비 /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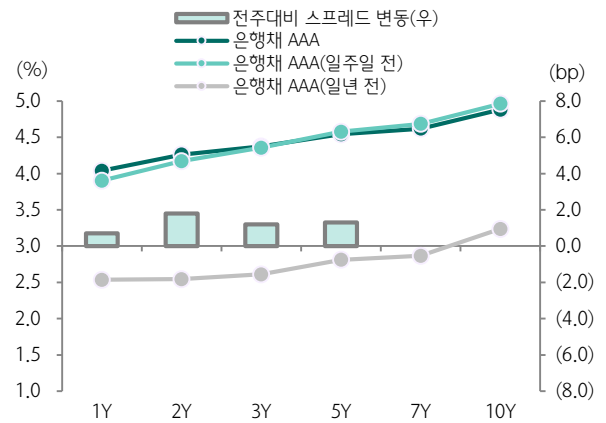
도표 3. 특수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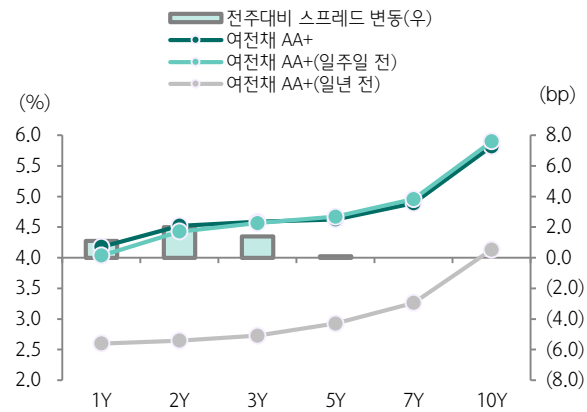
도표 4. 은행채 A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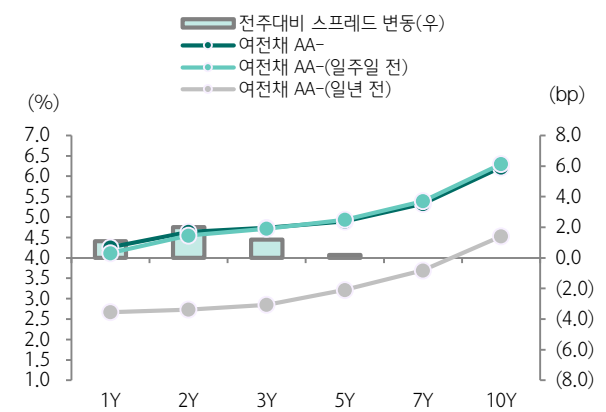
도표 5.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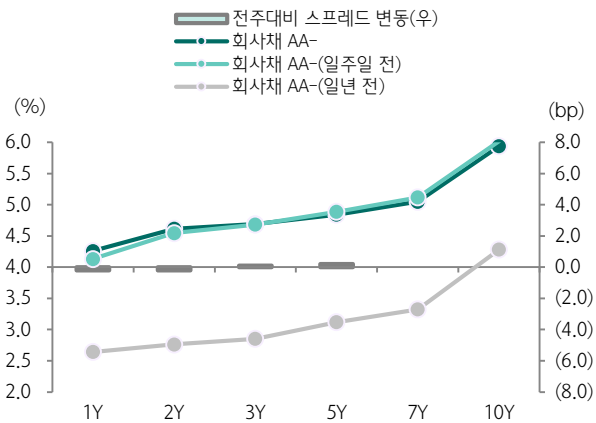
도표 6. 여전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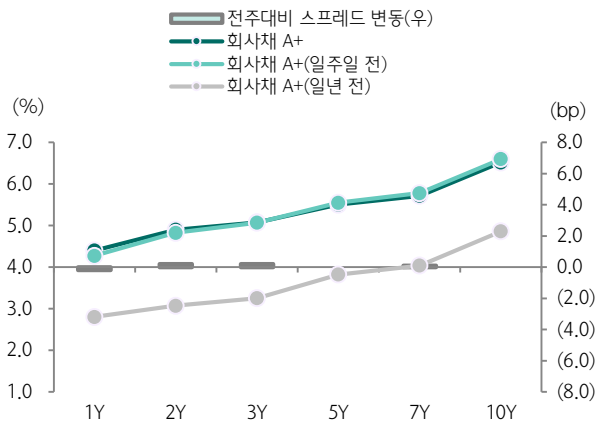
도표 7. 회사채 A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8. 회사채 A+ 금리커브와 스프레드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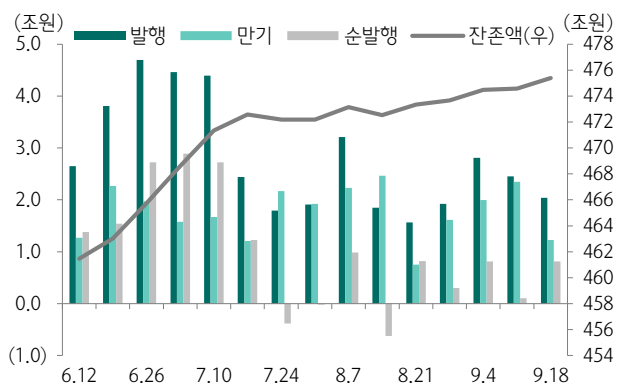


주: 2026.9.18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발행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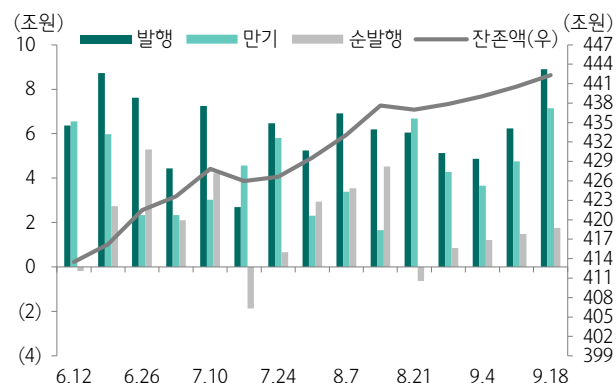
도표 9. 특수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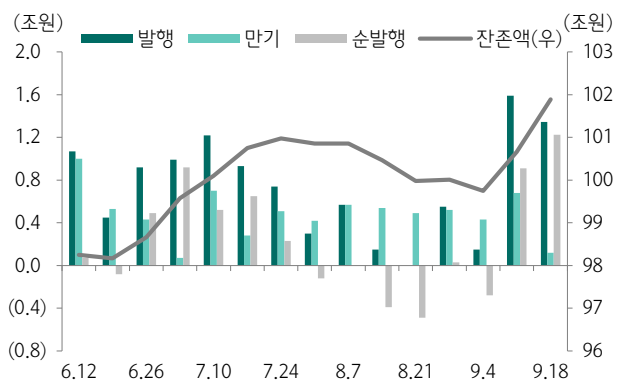
도표 10. 은행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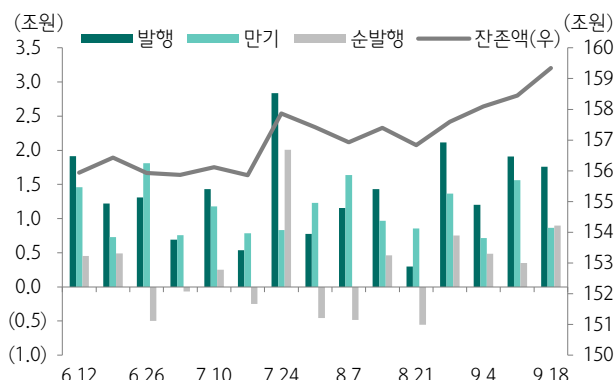
도표 11. 카드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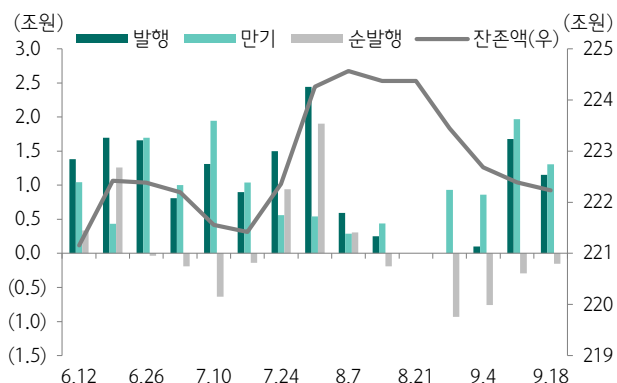
도표 12. 캐피탈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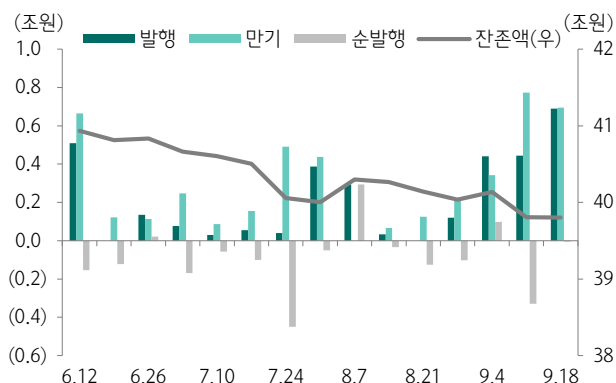
도표 13. A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4.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만기 현황



주: 발행일 기준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도표 15.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 만기	금액		참여 금액	수요예측 경쟁률(1)	금리밴드			결정 스프 레드	사용목적
					발행	예측			기준금리	하단	상단		
2026-09-14	제주은행(신종)7	A+	2026-09-22	영구 (5Y콜)	480	340	480	1.41	절대금리	5.2	+5.9	5.9	운영자금
2026-09-14	SK리츠8-1	AA-	2026-09-22	1Y	400	400	1,700	4.25	개별민평	-30.0	+30.0	0.0	채무상환
2026-09-14	SK리츠8-2	AA-	2026-09-22	2Y	600	600	1,950	3.25	개별민평	-30.0	+30.0	0.0	채무상환
2026-09-15	대한전선155-1	A0	2026-09-22	2Y	210	200	430	2.15	개별민평	-30.0	+30.0	6.0	운영자금
2026-09-15	대한전선155-2	A0	2026-09-22	3Y	280	200	760	3.80	개별민평	-30.0	+30.0	0.0	운영자금
2026-09-15	에스케이지오센트릭26-1	AA-	2026-09-22	2Y	650	400	650	1.63	개별민평	-40.0	+40.0	38.0	채무상환
2026-09-15	에스케이지오센트릭26-2	AA-	2026-09-22	3Y	750	300	750	2.50	개별민평	-40.0	+40.0	55.0	채무상환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주: 공란은 수요예측 결과 공시 전 / 수요예측 경쟁률은 유효수요 기준

도표 16. 이번 주 회사채 수요예측 대상 기업

(단위: 억원, bp, %)

수요예측일	발행사	회차	신용 등급	발행일	발행만기	예측금액	금리밴드			사용목적
							기준금리	하단	상단	
-	-	-	-	-	-	-	-	-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증권

유통시장

도표 17. 주간 회사채 유통시장 상위거래

(단위: 억원, %, bp)

종목명	신용등급	거래금액	거래일	만기일	잔존기간	민평금리	평균거래금리	평균-민평
KB금융지주65	AAA	1,700	2026-09-15	2029-09-14	3년	4.364	4.378	1.4
KB금융지주65	AAA	1,400	2026-09-18	2029-09-14	3년	4.399	4.422	2.3
SK지오센트릭21-1	AA-	1,200	2026-09-17	2027-01-29	6월	3.919	4.201	28.2
KB금융지주49-2	AAA	900	2026-09-14	2026-10-31	3월	3.245	3.368	12.3
KB증권45-2	AA+	800	2026-09-18	2027-09-03	1년	4.149	4.229	8.0
SK309-1	AA+	800	2026-09-14	2026-12-11	3월	3.406	3.400	-0.6
한국투자증권33-1	AA0	600	2026-09-18	2029-07-26	3년	4.675	4.644	-3.1
한국수력원자력47-2	AAA	600	2026-09-18	2027-10-17	1년6월	4.072	4.110	3.8
엔에이치투자69-2	AA+	600	2026-09-17	2027-02-05	6월	3.685	3.867	18.2
미래에셋증권83-3	AA0	600	2026-09-17	2029-04-13	3년	4.570	4.630	5.9

주: 1) 2026.9.14~2026.9.18,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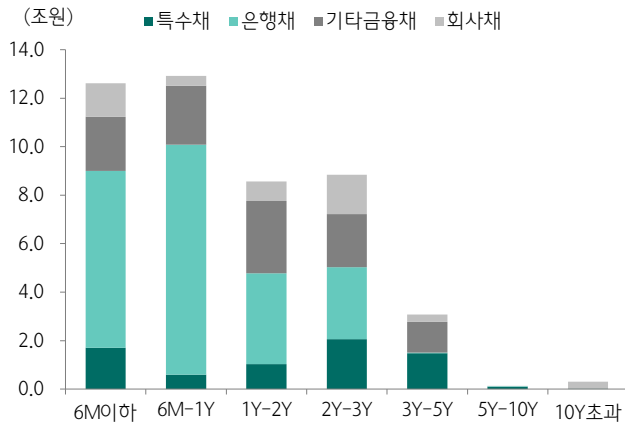
도표 18. 주간 회사채 강/약세거래 현황

(단위: 억원, bp)

강세				약세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종목명(잔존기간)	신용등급	거래량	평균-민평
LG화학54-3(지)(1년6월)	AA0	231	-15.5	KB금융지주49-2(3월)	AAA	226	104.4
CJ ENM29-1(1년6월)	AA-	100	-12.7	키움증권5-2(3월)	AA0	100	72.1
메리츠증권2411-1(3월)	AA0	200	-12.4	SK지오센트릭21-1(6월)	AA-	150	28.4
한국투자증권25-2(3월)	AA0	100	-10.3	SK지오센트릭21-1(6월)	AA-	1200	28.2
GS칼텍스140-3(6월)	AA+	400	-9.5	엔에이치투자69-2(6월)	AA+	600	18.2
신한금융지주160-1(3월)	AAA	100	-7.9	하나에프앤아이190-3(2년)	A+	250	14.6
호텔롯데80-1(1년6월)	AA-	100	-6.4	한국수력원자력76-1(3월)	AAA	600	14.4
한국중부발전38-2(1년)	AAA	200	-5.6	신한투자증권2402-2(6월)	AA0	300	14.2
한국투자증권27-1(3월)	AA0	200	-4.9	삼양홀딩스93-2(3월)	AA-	200	13.8
메리츠금융지주17-1(3월)	AA0	400	-4.4	미래에셋증권71(1년)	AA0	300	13.2

주: 1) 2026.9.14~2026.9.18, 2) 발행물, 유통화증권 제외. 선순위, 무보증, 공모채기준 100억원 이상 거래
자료: 본드웹,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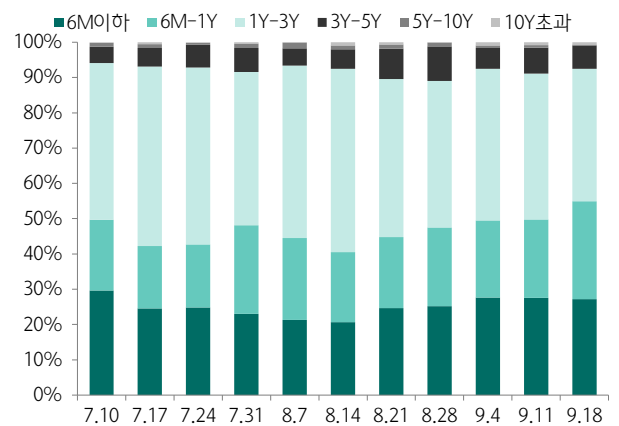
도표 19.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



주: 2026.9.14~2026.9.18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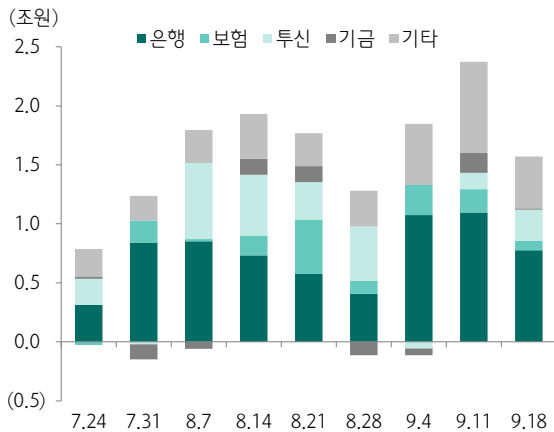
도표 20. 주간 잔존기간별 거래대금비중 추이



주: 주간단위(월~금) 작성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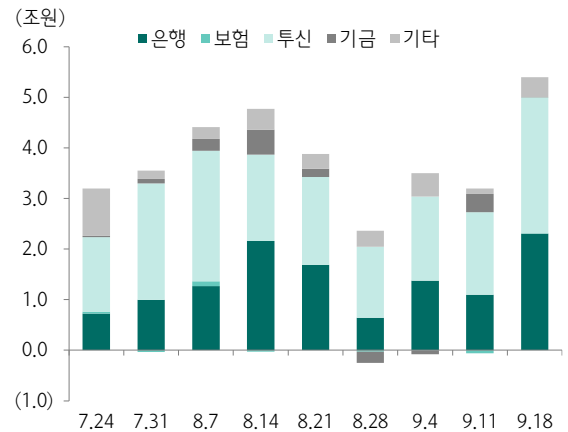
도표 21. 투자자별 특수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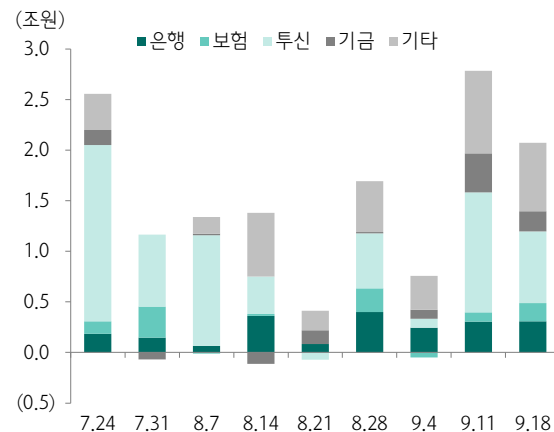
도표 22. 투자자별 은행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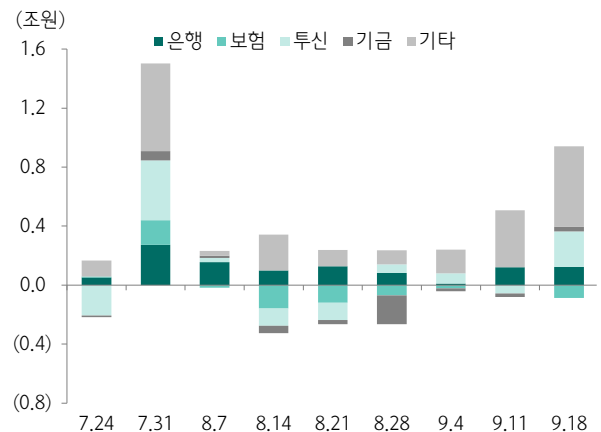
도표 23. 투자자별 여전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4. 투자자별 회사채 순매수 추이



주: 기타에는 기타법인, 개인, 국가/지자체, 외국인, 종금 등 포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하나증권

도표 25. 발행사 긍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9.18 기준)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상향 검토	애크온캐피탈(A0/캐피탈)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A-/이차전지 소재)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A-/이차전지 소재)
긍정적	LG전자(AA0/종합가전)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파르나스호텔(A+/호텔) 동원에프앤비(A+/식품제조) 통영에코파워(A+/민자발전) LS(A+/지주)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한진칼(A-/지주) 한진(BBB+/물류) 두산(BBB+/지주) 가나안(BBB/제조업)	엘에스일렉트릭(AA-/전기장비) 한국항공우주산업(AA-/방산)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동원에프앤비(A+/식품제조) LS(A+/지주)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두산(BBB+/지주)	포스코인터내셔널(AA-/종합상사) 엘에스일렉트릭(AA-/ 전기장비) 풍산(A+/비철금속) 통영에코파워(A+/화력발전) 엘에스전선(A+/전력 및 통신 케이블) LS(A+/지주) 현대코퍼레이션(A0/종합상사) 대한항공(A0/항공) 에이치디건설기계(A0/건설기계)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A-/지주) 한진칼(A-/지주) 삼성중공업(A-/조선) 한화오션(A-/조선) 한진(BBB+/물류) 한신공영(BBB0/건설) 티와이엠(BBB-/농기계) 화승코퍼레이션(BBB-/자동차부품)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도표 26. 발행사 부정적 등급전망 현황 (BBB- 등급 이상, 무보증 선순위채, 보험지급능력평가 / 9.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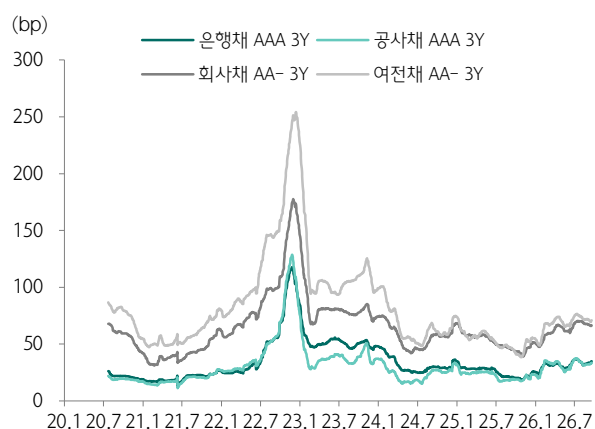
구분	한신평	나신평	한기평
하향 검토	에스케이실트론(A+/반도체 소재)	에스케이실트론(A+/ 반도체 소재)	에스케이실트론(A+/ 반도체 소재)
부정적	LG화학(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건자재) 포스코이앤씨(A+/건설)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A0/석유화학) 코리아세븐(A0/유통) 무림페이퍼(A-/제지) 동화기업(BBB+/건자재) 두산퓨얼셀(BBB0/연료전지)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개발)	LG화학(AA+/석유화학)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케이씨씨글라스(AA-/건축자재) 롯데물산(AA-/부동산임대) 동아에스티(A+/제약) 포스코이앤씨(A+/건설)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A0/석유화학) 코리아세븐(A0/유통) 신한자산신탁(A-/신탁) 에코프로(A-/지주) 두산퓨얼셀(BBB0/연료전지) 신원(BBB-/의류제조)	한화솔루션(AA-/석유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AA-/석유화학) SK지오센트릭(AA-/석유화학) 호텔신라(AA-/면세) 케이씨씨글라스(AA-/건자재) 현대엘리베이터(A+/승강기) 포스코이앤씨(A+/건설) 동아에스티(A+/제약) 에이치앤엘어드밴스드(A0/석유화학) 대우건설(A0/건설) 코리아세븐(A0/유통) 엘에스엠트론(A0/산업기계) 무림페이퍼(A-/제지) 에스케이디앤디(BBB-/부동산 개발)

자료: 신용평가 3사, 하나증권

Key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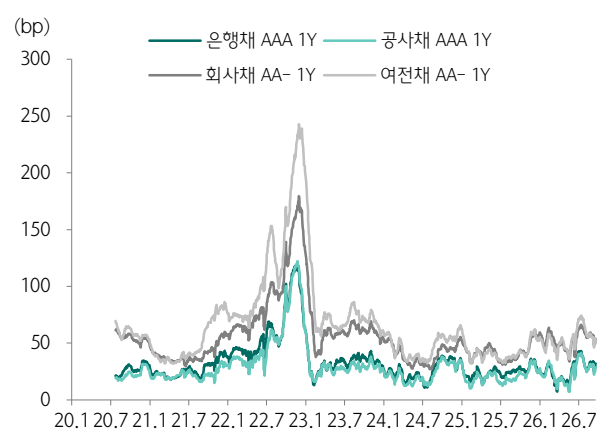
주요금리차(1)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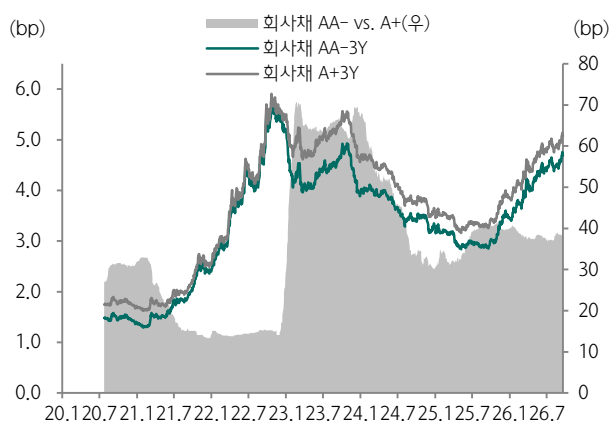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주요 크레딧채권 신용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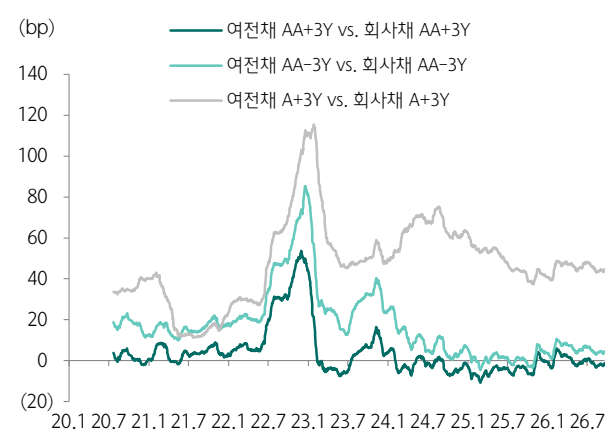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A+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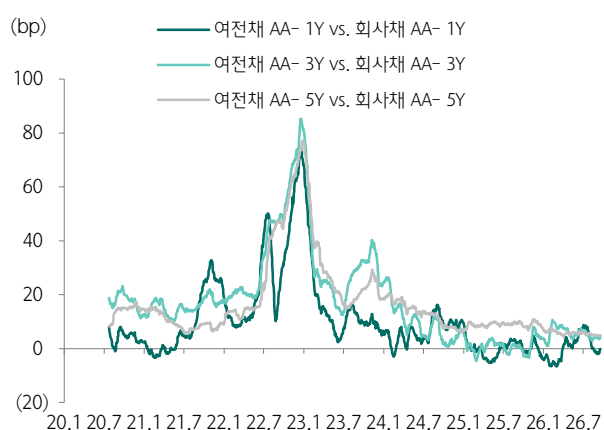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3Y/회사채3Y 스프레드 (AA-/AA-/A+)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회사채 스프레드(1Y/3Y/5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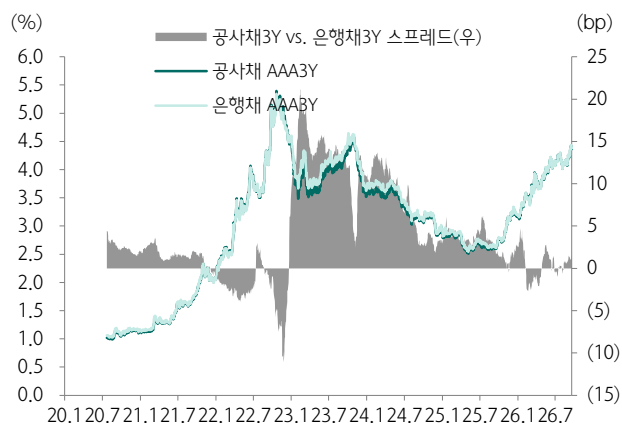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및 회사채 AA-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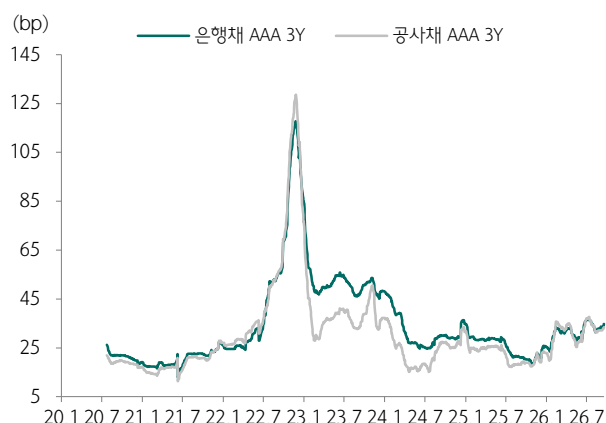
주요금리차(2)

특수채3Y/은행채3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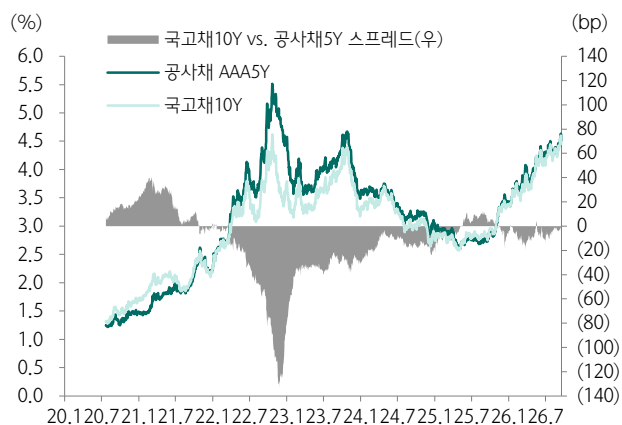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국고대비 Spread(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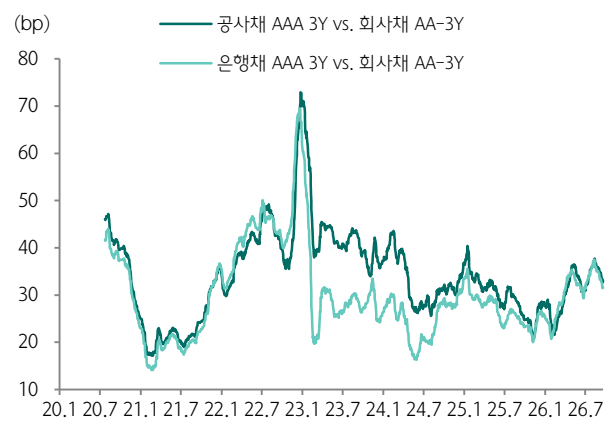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국고채10Y/특수채5Y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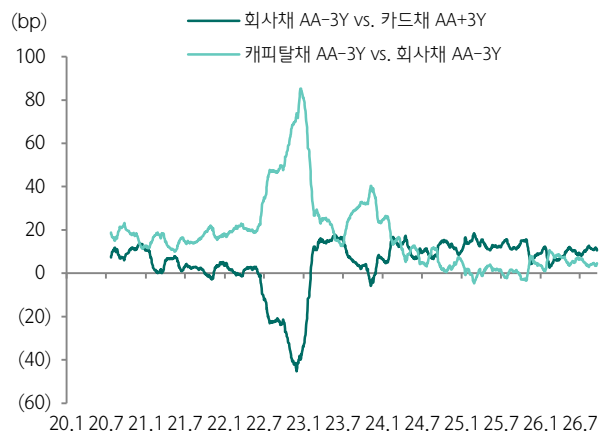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특수채AAA/은행채A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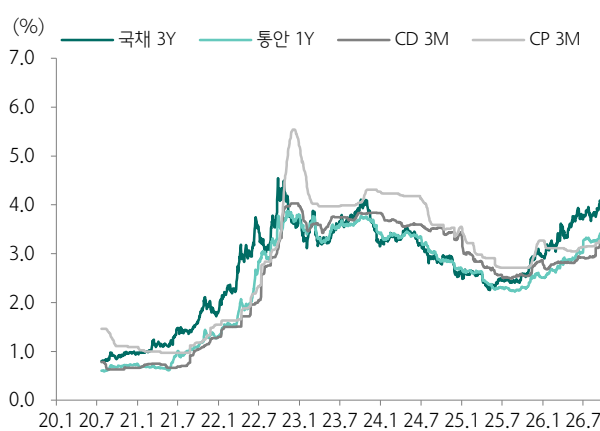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AA+/캐피탈채AA- 회사채(AA-)대비 스프레드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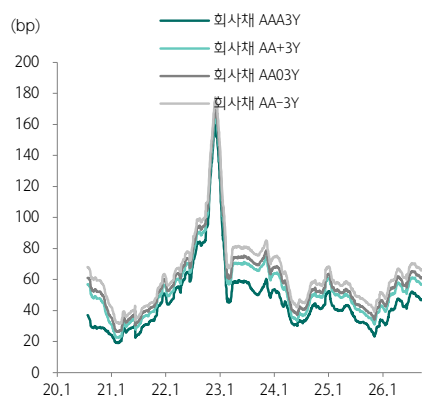
CP 3M/CD 3M/통안채1Y/국채3Y 금리 추이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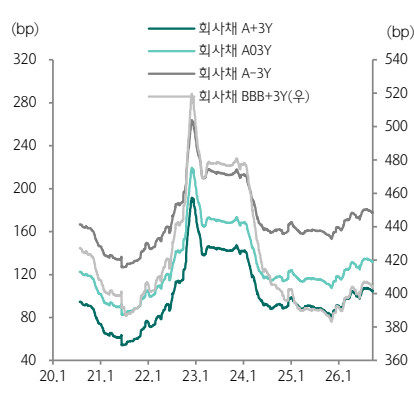
주요금리차(3)

AA등급 이상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A등급 이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3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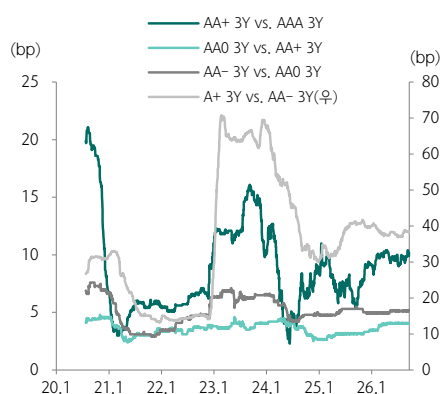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AA- 장단기 스프레드(3Y/5Y/7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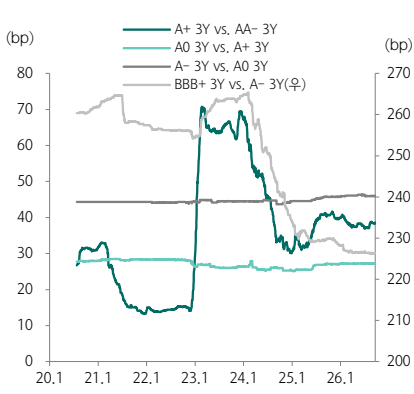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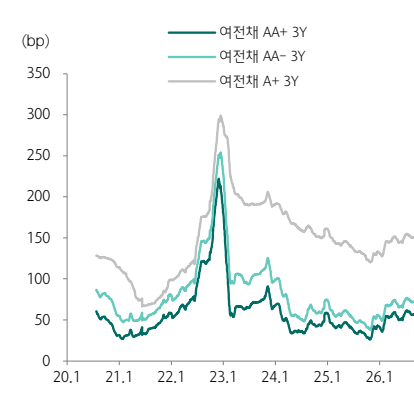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회사채 등급 간 스프레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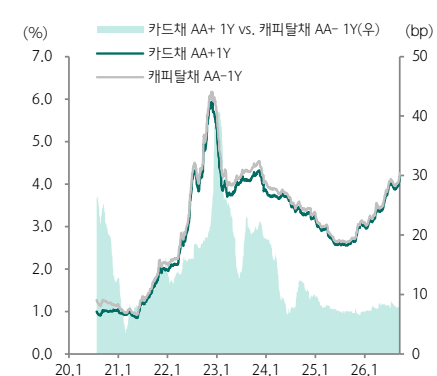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여전채 3Y 스프레드 추이(AA+/A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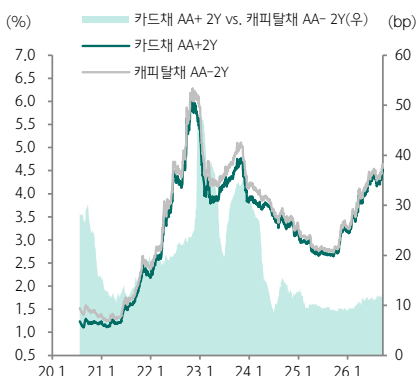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1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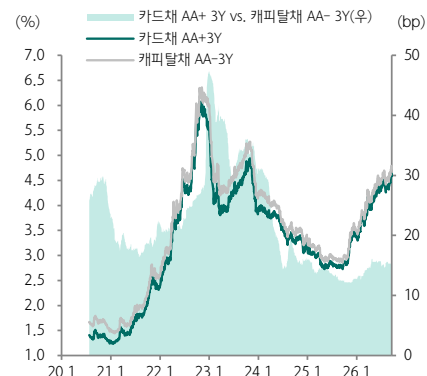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2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

카드채/캐피탈채 스프레드(3Y)



자료: 인포맥스, 하나증권